

속담 비유성의 의미 · 화용론적 연구

주경희*

〈차 례〉

1. 머리말
2. 문제 제기 및 논의 방향
3. 형식 층위에서의 비유성
4. 의미 층위에서의 비유성
5. 담화 층위에서의 비유성
6.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속담의 특성 중 비유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속담의 비유성은 속담에 사용된 수사 기법, 관용적 의미, 그리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 맥락과의 적절성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비유성을 속담의 특성으로 제시하려면 이들 중 속담만이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기존의 논의처럼 속담과 다른 관용 표현과의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비유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논저에서 비유성을 속담의 중요한 특성으로 제시하면서도 다른 관용 표현과 구별하는 뚜렷하고 분명한 기준으로 제시하지 못하

* 세종대학교

였다. 이는 속담에 대한 대개의 연구가 그렇듯이 분명한 개념이나 정의 없이 논의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구별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¹⁾

그 결과 속담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면이 부각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 다른 관용 표현과의 구별 기준으로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이는 아래 제시하는 예문에서 잘 나타난다.

(1)

- ㄱ. 관용어와 속담은 모두 표현 형식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나 속담은 비유성, 풍자성, 교훈성이 강한 반면 관용어는 그러한 특성이 약하거나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임지룡, 2000:197)
- ㄴ. 속담문은 비유 의미 외에 교훈성이나 풍자성이 더해지지만 순수 관용 표현은 비유 의미를 넘어서지 못한다. (문금현, 1996:22)

(1-ㄱ)에서는 비유성을 속담과 관용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1-ㄴ)에서 이들의 공통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속담과 다른 관용 표현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는 비유성을 서로 다른 언어 층위를 대상으로 설명한 결과라고 보인다. 즉 (1-ㄱ)이 담화 층위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1-ㄴ)은 의미 층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²⁾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층위별로 나타나는 비유성의 특성 및 이들간의 연관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속담의 비유성이란 의미 층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기술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속담

1) 박만규(2002: 309)에서 관용 표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추상적인 개념 정의와 포괄적인 용어 사용 즉 충분한 조작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용어들이 관용 표현의 범주 설정 및 분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2) 물론 비유성, 비유 의미라 하여 이들이 구별되는 것 같으나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비유성의 층위별 특성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유의 특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속담의 의미 화용론적 특성을 기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서 속담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논저에서 제시된 바 있다.(이성영(1991), 서혁(1993), 이종철(1998), 김봉순(1999), 문금현(1999), 안경화(2001), 전해영(2001)) 그러나 이런 가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속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부족도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 혹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자료로서 직접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속담의 특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문제 제기 및 논의 방향

먼저 속담의 비유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조재윤(1988)과 이종철에서의 ‘비유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2)

속담의 특성은 비유에서 시작된다. ‘가게 기둥에 입춘’, ‘옥에도 티가 있다’, ‘쥐 본 고양이’ 등의 표현이 직설적 서술로 쓰일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상점에 춘첩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가 쥐를 안보면 어떻게 쥐를 잡으며, 흠 없는 옥이 어디 그리 흔한가.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어구들이 특정 어구들이 특정 사실에 대한 사실 그 자체일 경우는 속담이 아니다. 이들은 어느 특정한 언어 환경에서 다른 사실에 비유될 수 있을 때에만 속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속담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비유성에 있다. ①

즉 보편적인 진리를 어떤 구체적인 사실로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이 속담이다. 비유는 속담 외에 각종 문학 작품과 격언류에도 있다. 그런데 이들에서는 개인적인 역량에 따르는 개인의 정서나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비유가 사용된다. 반면 속담에 나타나는 비유는 보다 광범위한 언중이 쉽게 공감하는 정서나 생활 경험이 근거하는 보편적 비유가 사용되고 있다. ②

비유의 방법에는 직유, 은유, 풍유 등 수사법상 비유법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법이 동원된다. (③)(조재운, 1988:14)

(①, ②, ③ 구분은 필자가 처리함)

(2)에서는 담화층위(①), 의미 층위(②), 형식 층위(③) 등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는 속담의 비유성을, 나열식으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 외에도 조재운(1988)에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 비유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논의 초점이 다 다르다.

비유성을 형식적 특성으로 분류하는가 하면,³⁾ 의미적 특성으로 보기도 한다.⁴⁾

특히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속담이 쓰이고 있는 맥락과 관련하여 거개의 속담은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속담의 수사적인 기법은 비유를 통하여 언술의 효과를 높이는 표현구조를 취한다.”(조재운, 1988:130)는 진술에서도 밑줄 그은 용어들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논의의 중심 내용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논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종철(1998)의 논의도 조재운(1988)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 그대로 인용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속담은 비유 표현으로 되어있다. 비유 표현은 본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본의와 유사성이 있는 매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①)

비유 표현이 전달하는 의미는 매체의 이미지로 말미암아 그 유사성을 직설적으로 바꿔서 풀어쓰기한 표현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뱀새가 황새를 따라 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에게 말

3) 형식적 특성- 간결성, 비유성, 시가성.

의미적 특성-교훈성, 관용성, 사회성, 상황성.

심리적 특성- 통속성, 직관성, 자극성, 일면성.

4) “취구명에도 별 뜰날이 있다”는 ‘상황 반전’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의지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는 ‘가용성’을 나타낼 때 비유성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는 관용적 의미와 관련지는 것으로 의미 층위에서의 비유성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경우에, 이 속담의 기본 의미를 “남이 한다고 제 힘에 겨운 일을 하면 도리어 낭패를 당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뱀새’, ‘황새’의 이미지로 말미암아 더 강한 정서적 의미를 전달한다. (②)

속담은 대부분 농경사회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속담에서 매체로 쓰인 어휘들은 농경사회를 반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③)

(①,②,③은 필자가 임의로 구분함)

(3)에서도 담화(①), 의미(②), 형식 층위(③) 별로 서로 구분하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층위의 구분 외에도 (2)(3)에서 설명하는 비유성은 속담이 아닌 다른 표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속담의 특성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비유성이 속담 고유의 특성으로 기술되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특히 관용 표현)에는 나타나는 않는 내용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개념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속담과 다른 관용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것 같다.⁵⁾

이 장에서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비유성에 대한 논의가 각 층위별로 나누어 기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일한 용어가 필자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속담과 다른 관용 표현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속담의 특성으로 기술하기 위해 형식, 의미, 담화 층위에서 비유성에 대한 논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 “그로 인해 범주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예가 많다. 관용어와 속담 중 각자의 연구 목적에 맞추어 단지 몇 줄 정도의 소략한 비교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양자에 대한 비교가 정밀히 행해지지 않은 결과, 동일한 언어 형식을 관용어 연구자들은 관용어로 다루고, 속담 연구자들은 속담으로 다루는 극심한 불일치를 보여 왔다. 이러한 사정은 사전류(국어사전, 속담 사전 등) 또한 마찬가지여서 사전에 따라서는 아예 둘을 구분하지 않은 채 등재하기도 하고, 구분하되 그 등재모습이 사전마다 일치하지 않는다.”(김진식, 1997:94) 이런 지적이 이런 실정을 잘 나타낸다.

3. 형식 층위에서의 비유성

형식 층위에서 속담의 비유성은 수사 기법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생 오라비 같다’는 직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은유, ‘아니 댜 굴뚝에 연기나랴’는 풍유,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에서는 대구와 대조 등의 수사 기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속담은 형식적인 면에서 비유성을 지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식은 비유는 속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또 모든 속담이 비유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속담 고유 특성으로 기술하기 어렵다.

비유법이 사용된 속담은 많지 않다. 장덕순(1971: 201)에서 속담의 유형을 인간의 체험적 진리를 담은 속담⁶⁾, 인정을 묘파(描破)한 속담⁷⁾, 실감나는 비유를 한 속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모든 속담의 표면 구조에 비유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나타내준다. 또한 담화에서 속담은 다양한 형태적 변이형을 허용하므로 표면구조 중심의 비유에 대한 고찰로는 속담의 특성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⁸⁾

물론 형식적 고찰이 속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 층위에서 사용된 비유를 중심으로 다룬 논문은 전해영(2002)이 있는데 이 논문은 속담의 여성에 관련된 은유표현을 검토하여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⁹⁾

6)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둘째 며느리 삼아 보아야 만며느리 착한 줄 안다’ ‘햇대 밑에 더벅머리 셋이면 날고 뒤는 놈도 별 수가 없다’

7)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한잔 술에 눈물 난다’

8) 예를 들면 명령형 어미가 사용된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반문형 어미가 사용된 ‘궁든 답이 무너지랴’를 대상으로 명령법, 풍유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속담이 적용되는 문맥에서는 그 말미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속담의 문법 어미를 통한 비유 연구는 크게 의미가 없다. (심재기, 1983:249)

9) 속담에 사용된 여성 은유는 대부분 두 개념 사이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 구조적 은유로서, 크게 여성을 사물로 보는 것, 동물로 보는 것, 식물로 보는 것, 음식이나 그밖의 물

이처럼 속담에 사용된 수사 기법을 검토하여 사회 인식과 속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속담 자체에 사용된 비유법이 의미적 비약이나 강력한 표현 효과에 기여하는 것을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속담 고유의 특성 즉 다른 관용 표현과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특성으로는 기술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형식 층위에서의 비유성의 논의는 속담의 특성으로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4. 의미 층위에서의 비유성

의미 층위에서의 속담의 비유성은 관용적 의미의 구현 과정에서 나타난다. 속담의 관용적 의미란 속담이 가진 명제적 의미의 은유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속담의 비유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개의 관용 표현은 관용적 의미를 비유에 의해 획득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의미 구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용 표현에 속하는 하위 범주들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는 이미 여러 논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속담의 관용적 의미는 다른 관용 표현과 달리 명제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가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관용 표현과 차이를 나타낸다.¹⁰⁾

질로 보는 것 등으로 그 특징이 드러났다.

- 10) 예를 들면 “관용어처럼 형태와는 상관없는 제3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비논리적이고 탈문법적인 성격도 있는 반면, 속담은 1차적인 의미 + a를 가지는 것으로 문법적이고 논리적인 경향이 짙다.”(박영순, 1985), “속담의 의미(관용적 의미, 2차적 의미)가 관용어처럼 구성 성분의 합으로 알 수 없는 의미도 갖지만 그러나 관용어 보다는 1차적 의미와 관련된 해석된 의미로서 관용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이수미, 2002) “속담은 그 구성 요소의 의미나 풍유적 지시를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미를 추정할 수 있는 반면, 관용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미 파악이 어렵다.”(임지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양영희(1995)이다. 양영희(1995)에서는 관용 표현의 의미 구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속담은 비유적 표현을, 결속언어는 파생 의미들의 결합으로, 속어는 언어 공통체의 문화나 관습을 언어로서 관용 의미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결속언어인 '눈이 높다'는 '눈'의 파생 의미 [사물을 보는 능력]과 '높다'의 파생의미 [지위나 수준 따위가 보통보다 뛰어 나다]를 결합함으로써, [사물을 보는 능력이 뛰어나다]의 의미를 구축하였으며, '두각을 나타내다'는 '두각'의 [(여럿 중에서) 특히 뛰어난 재능이나 학식]의 의미와 '나타내다'의 파생 의미 [눈에 띄다]를 결합하여 [여럿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는 의미를 구축한다.

속어인 '국수를 먹다'가 [결혼하다]는 의미를 표출한 까닭은 결혼을 하면 하객들에게 국수를 대접하던 우리의 풍습을 언어로 형상화하였기 때문이며, '콧대가 세다'가 [자존심이 강하다]를 의미하게 된 까닭은 우리는 인상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습성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코가 우뚝하고 곧으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할 것이라는 믿음을 언어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결속 언어와 속어의 관용적 의미 구현 과정은 비유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속담의 경우에는 이들과 달리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 예문 (4)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속담의 관용적 의미 구현 과정은 결속 언어나 속어와 달리 은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속담의 비유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표현의 속담이 많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¹¹⁾

룡, 2000)

- 11) 못난 사람일수록 동료들까지 망신시킨다'는 동일한 의미는 나타내는 속담으로 어물 전 망신은 꼴두기가 시킨다, 황아장수 망신은 고불통이 시킨다., 친구 망신은 곱사등이 시킨다, 집안 망신은 못난 며느리가 시킨다 등이 있다. 그리고 이는 속담의 관용적 의미가 관점임을 나타낸다.

그동안 관용 표현의 관용적 의미 구현 과정을 비유라는 용어로 간단하게 설명할 뿐 이들 간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보다 세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의미 층위에서 속담의 비유성이란 관용적 의미 구현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다른 관용 표현은 속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속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속담의 비유성을 의미론적 특성으로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양영희(1995: 192)에서 제시하는 속담의 의미 구현 양상을 인지 의미론에서 제시하는 은유의 원리에 적용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양영희(1995)에서 제시하는 속담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의 관용적 의미의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4)

- 1단계 : 가랑잎은 활엽수이고 솔잎은 침엽수이다. 그런데 활엽수는 가을에 낙엽이 되어 떨어지지만 침엽수는 가을이 되어도 낙엽이 되지 않는다.
- 2단계 : 따라서 솔잎보다 가랑잎이 더 바스락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잎이 솔잎을 나무란다.
- 3단계 : 그러나 가랑잎이나 솔잎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쪽을 나무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사람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4단계 : 제 허물 큰 줄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을 들어 나무란다.

그런데 (4)와 같은 해석 단계는 은유의 해석 원리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김종도(2004: 108)에서는 Lakoff&Turner(1989)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은유에는 네 가지 요소들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대 연쇄 은유’가 있어서 외적 체계성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본 대연쇄’, ‘물체들의 성질에 대한 상식이론’, ‘충칭적인 것은 특징적인 것’, ‘Grice의 양의 격률’이 통합되어 은유를 이루는 방식이다. (4)의 관용적 의미가 나타나는 과정을 이들 이론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구체적 지식을 참고하여야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물체들의 성질에 대한 상식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단계처럼 식물에 대한 언급을 사람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기본 대 연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는 속담은 ‘가랑잎’이 ‘솔잎’을 ‘나무라는’ 특정 사건을 나타내기보다는 ‘충칭적인 것은 특징적인 것이다’로 특징적인 어떤 행위나 속성을 일반화하여 ‘제 허물 큰 줄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을 들어 나무’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¹²⁾

이처럼 관용적 의미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유는 속담의 명제적 의미와의 유사성에 기인한다.¹³⁾ 이 점에서 다른 관용 표현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 층위에서의 비유성이란 형식 층위와 달리 속담 고유의 특성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속담의 관용적 의미는 항상 사람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 즉 [+HUMAN] 자질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다른 관용 표현과 구별된다. 속담에 식물, 동물, 광물, 무생물 등으로 표현된 것들은 관용적 의미 구현에 있어서는 모두 사람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속담의 관용적 의미는 관점이나 세계관과 같은 개념을 제시한다는 특성도 나타난다.¹⁴⁾ 이는 속담 분류 방법에서 잘 나타난다. 김도환(1995)에서의 분

12) 인지 의미론에서는 비유와 은유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속담 특성에서 사용하던 비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간혹 은유라는 용어도 비유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로 보이도 부방하다. 비유를 보는 관점에 따라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인지 의미론에서는 비유의 유형인 은유, 제유, 환유, 직유 등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설명한다. 물론 이 말이 이들이 갖는 세부적인 차이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나 이 글에서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세부적인 차이는 간과해도 될 듯 싶다.

13) 박영순(2000: 77)에서 은유와 관용어의 차이를 은유는 우선 기저 구조에 원래 표현과 나타내려는 의미 사이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반면 관용어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 설명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관용어는 은유라는 장치가 아닌 다른 장치에 의해 관용적 의미가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14) 이성영(1991: 173)에서는 속담에는 선악, 야유, 당위, 진리 등과 같은 현실 사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큰 범주를 바로 관용적 의미로 본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성영(1991: 180)에서는 비유는 특정한 새로운 경험 사태를 이미 알고 있는 다른 것에 비유함으로써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비

류 방법도 이를 잘 나타낸다.¹⁵⁾

이러한 특성은 관용적 의미로 인해 속담은 담화 상황을 통해 구체적인 의미와 속담에 사용된 어휘의 구체적인 대상을 부여받는다. 이 점에서 속담의 비유성은 의미론과 화용론의 양 측면에서의 고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¹⁶⁾

지금까지 의미 층위에서 속담의 비유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제적 의미의 은유적 해석이 관용적 의미라는 점에서 속담의 비유성은 의미 층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속담의 관용적 의미는 주로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한 관점이나 세계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관용 표현과 구별된다.

5. 담화 층위에서의 비유성

속담은 담화에서 사용될 때 진정한 의미나 기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화용론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 관용적 의미의 구현 과정을 통해 나타나

유의 이러한 특성이 속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속담은 가능한 경험적 사태들을 견주어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범주화된 개념 체계의 언어적 표지”라는 설명은 관용적 의미가 범주 즉 개념을 나타낸다는 이 글에서의 논점과 같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15) 김도환(1995)의 속담 사전은 48개의 대 카테고리리로 분류한 후 그 각각에 속하는 속담들은 다시 소 카테고리리로 분류하면서 속담을 제시하고 있다. 인생의 공리 / 處世의 원리/ 處事의 원리/ 경제적 행위의 원리/ 인간의 심성/ 성품 언행/특정 부류인의 심리와 생활상 등등 이러한 범주는 관점과 같은 개념으로 이들이 바로 속담의 관용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16) 박영순(2000: 179)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생성되는 은유가 [+시간성]을 얻게 되고,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면 속담이 된다고 설명한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 ‘뚝배기보다 장맛’과 같은 것은 한국의 문화를 모르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은유이며, 속담이라고 설명한다. 콩을 볶아 먹던 우리 조상들의 관습과, ‘뚝배기, 장맛’은 한국 사람만이 즐기는 문화이다. 그러므로 맥락과 적절성, 사회문화적 지식이 더 첨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는 비유성은 담화에서 구체적인 의미 부여라는 점에서 담화 층위에서도 그 특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담화 상황과의 적절성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즉 화자가 사용한 속담이 상황에 적절할 때 속담의 관용적 의미가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속담이 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담화 층위에서의 비유성은 적절성을 전제로 한 의미 부여 과정 및 다른 발화 관계 형성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입장은 (2)(3) 등에서 제시한 속담의 사용 기능 즉 ‘어떤 사실을 비유로 서술한다’는 것을 담화에서의 비유성으로 보는 것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예문 (5)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

사용상의 비유성이란 속담이 ‘어떤 사실을 비유로 서술하는 기능을 뜻한다. 즉 ‘그림의 떡’은 실제의 그림 속에 있는 떡이라는 물체가 아니라 그림의 떡이 먹을 수 없듯이 ㄴ형상은 화려하나 화자에게 있어 실용적 가치가 없는 사물을 비유할 때 속담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즉 속담이 비유항으로 자리 잡고 피비유항은 특정 사실 명제이다. ‘...한 사실은...와 같다’ 식으로 표현된다 (심재기, 1983: 248)

(5)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비유로 서술하는 기능이며(5-ㄱ), 다른 하나는 적절성의 문제이다.(5-ㄴ) 흔히들 이 둘을 같은 내용으로 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위치럼 양분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담화 층위에서의 비유성이란 (5-ㄴ)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즉 명제적 의미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비유성이 담화에서 상황과 적절해야 그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저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6)

‘계집자랑 반병신 자식자랑 온 병신’이라는 속담의 경우 가족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풍자적으로 적용할 때에만 이 속담이 갖는 가치를 알게 되고 이때

이 속담의 표현이 갖는 기발한 비유성이 생명이 있다고 본다. '자식 죽는 것은 봐도, 곡식 타는 것은 못 본다'는 속담의 경우도 이 속담은 곡식 타는 것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을 자식 죽는 일에 비유하는 반어적 수법으로 받아들이기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심재기, 1983:253)

(6)은 (5-ㄴ)과 같이 상황과의 적절성을 비유성과 관련지은 것이다.

(6)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만약 이들 속담이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은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속담으로서의 기능이나 의미 부여를 받을 수 없다. 위의 설명을 통해 같은 논저에서 담화에서의 비유성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5-ㄱ)은 담화 층위에서의 비유성에 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5-ㄱ)은 속담이 담화에서 하는 기능을 뜻하므로 이는 관용적 의미와의 관계가 아니라 담화에서의 담화 상황과의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화용론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5-ㄱ)에서의 '비유로 서술하는 기능'은 '지시'로 대체되면 적당할 것 같다.¹⁷⁾ 이는 마치 담화에서 앞에 나온 문장을 대명사 '이'나 '이것'으로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5-ㄱ)에서 비유라는 말 대신 "지시한다"로 다시 쓰기 되어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¹⁸⁾

그런데 이러한 지시 기능은 관용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즉 문장 형식의 속담이 관용적 의미를 획득하여 하나의 어휘소의 기능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5-ㄱ)에서의 비유 기능이라는 것은 관용성을 획득한 속담이 담화에서 나타내는 상황 지시 기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17) 그동안 속담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논의한 이러한 내용들이 화용론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통일된 용어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현재 속담의 논의가 관습적인 용어(혹은 속담의 논의에서만 적용되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는데 비유성도 그 중의 하나이다.

18) 비유는 근본적으로 의미론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의 문제에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성범(1991)에서도 '비유를 알아차리는 과정의 민첩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보통 내용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어떤 특정한 비유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를 나타내는가의 문제이다.'로 보아 의미론의 문제로 보고 있다.

담화 상황이란 화·청자, 문맥 등 모든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속담은 화자의 의도, 청자의 태도, 화자의 상황에 대한 판단,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발화 상황 등을 모두 지시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래 제시하는 예문(7)을 통해 살펴보면 이 속담은 전·후 발화와 그와 관련된 담화 상황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경희, 1999, 2002 참고)

이로 인해 동일한 속담이라도 속담이 사용된 상황에 따라 화자의 생각,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청자 비난, 청자 칭찬, 상황의 요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발화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행동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관용어와는 차이가 있다.¹⁹⁾

(5-7)에서 비유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심재기(1986: 305)에서 비유의 기능을 “직접적 서술이 아닌 경우, 반어적 해석의 용납, 사회적으로 인정된 다양한 함축 의미로의 해석”이라고 더 보충 설명한 것에서도 나타난다.²⁰⁾

비유의 개념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 용어만으로는 화용론적인 특성을 다 기술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는 의미론의 용어를 화용론에 사용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진술은 속담이 담화에서 나타내는 기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싶다.

담화에서 속담이 담화 상황을 지시하는 것을 비유 기능이라고 설명하면 담화에서 나타내는 속담의 실제적인 기능을 부차적인 기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교화나 풍자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19) ‘속담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슬기로운 충고 내지 교훈임에 대하여 관용구는 어떤 사물이나 인간의 성질이나 행동을 특징짓는데 그친다.’ (이기문, 1975:55-6. 오래 전 모든 자료 분실로 인해 구체적인 제목을 제시하기 어렵다. 서울 신문사에서 발행한 잡지에서 인용한 것이다. 원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용어는 문 내 하나의 성분적 어휘 의미를 띠는 반면에 속담은 하나의 독립된 주제(사상 내용면)적 의미를 띤다”(성광수, 1995:854) 등에서 이러한 면이 잘 나타난다.

20) 이러한 기능 외에도 서혁(1993: 252)에서 지적한 속담의 기능 즉 ‘비유적인 명명, 고도의 간접 화법 기능, 대상이나 상황의 구체화와 가시화, 구체적인 상황 규정성, 실재화와 기정 사실화’ 등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즉 심재기(1983)에서 비유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속담은 한 언어 사회가 관용하는 함축의미 때문에 지속적인 비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속담의 일차적 기능이 비유에 있다고 하여 특정한 사실에 대한 비유적 서술만으로 속담이 수행해야 할 모든 기능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다. 비유를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화용론적 부차기능이 생생한 역할을 할 때 교화와 풍자 기능을 한다.” 고 하며 비유성의 화용론적 특성을 교화와 풍자로 제한하는 듯하다.

그런데 교화나 풍자 등은 속담이 담화에서 다른 발화와 갖는 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기능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화용론에서 다른 발화와와의 관계는 실로 아주 다양하다. 일례를 들면 보충기능, 설명, 도식화, 재개념화, 주장, 진경화, 명세화, 등등 아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속담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면 교화 기능으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면 풍자 기능으로 설명한다. 때로는 속담의 내용에 따라 교화와 풍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풍자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분류하기도 한다. 그런데 속담을 담화 분석 해보면 이러한 기능 여부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그동안 담화 층위에서의 비유성에 대해서는 주로 (5-ㄱ)만이 언급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비유성에 대한 언급보다는 관용성을 획득한 속담이 갖는 어휘소로서의 기능이다. 따라서 상황과의 적절성을 언급한 (5-ㄴ)이 비유성의 특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동안 여러 논저에서 (5-ㄱ)을 인용하며 이를 담화 층위에서 나타나는 비유성이라고 본 것은 전반적인 화용론의 틀에서 속담을 본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담화 층위에서 속담의 비유성은 (5-ㄴ)의 설명처럼 상황과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담화에서 ‘화자에게 있어 실용적 가치가 없는 사물, 혹은 사건 상황’을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을 사용하여 상황과의 적절성이 형성되어야 관용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속담으로써 지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속담으로 나타내는 담화 상황을 파악하면서 담화 일관성을 이루는 것이다.²¹⁾

담화 상황과의 적절성 여부는 다른 발화 상황과의 관계 그리고 속담에 사용된 어휘들의 구체적인 의미부여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유가 사용된 표현들은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표현에서 보듯 형식적인 층위에서 바로 비유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속담에서 언급되는 비유는 이러한 일상적인 비유와 달리 사용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²²⁾

그런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속담이 가진 관용적 의미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속담의 관용적 의미는 [+HUMAN]에만 적용되며 그리고 일정한 관점이나 시각을 제시하기 때문에 담화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라는 속담이 ‘제 허물 큰 줄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을 들어 나무란다’는 관용적 의미와 관련된 인간의 성품이나 언행 등과 관련된 관점을 제시한다면 담화에서는 ‘가랑잎’과 ‘솔잎’ 그리고 ‘바스락거린다’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부여한다. 적절성의 문제는 담화 상황과의 관계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7)

비로소 상현은 머쓱해진다. 마침 술이 왔다. 그들은 아까와 달리 천천히 술을 마신다.

21) 이성범(1996)에서는 비유가 갖는 화용론적 특성으로 적절성을 들고 있다. 즉 어떤 특정한 비유는 어떤 특정한 맥락(즉, 예를 들어 문제풀이라든지, 동의요청, 어려운 주제의 설명 등등)에서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라는 문제로 보고 있다.

22) ‘Un bon renard...’는 불란서 속담의 경우 속담 자체를 놓고 관찰할 때, 은유나 제유같은 비유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어휘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어휘들과 직접 관계를 갖게 되는 일반 언술들에서의 비유와는 달리, 속담에서의 비유는 해석과정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이 속담의 주체인 여우가 은유적 해석을 통해 ‘교활한 인간’ 또는 ‘영리한 인간’ 즉 ‘사람’을 지시하게 되는 순간, poules에 제유법이 적용되어 ‘재산’을 지시하게 된다. 결국, poules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renard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수미(2002)의 논의는 참고할 만하다. 다만 여기에서의 해석과정이란 화용론적 해석을 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야.”

상현은 주정 비슷하게 다시 시작했다.

“자네가 똑똑한 것도 알고 잘생긴 것도 안다. 이곳은 내 땅이 아니지만 우린 조선 사람이야.”

“.....”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반상의 구별이 없어졌기로 일조일석에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야. 내 땅이 아니라고 해서, 양반들이 김혼장 꼴이 되고 양가의 규수가 장사꾼으로 떨어졌다 해서 그것을 기화 삼는다면 내 칼이 자네 목에 들어갈 줄 알란 그 말이니라.”

“저도 한말씀 드리지요.”

“.....”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신언서판이 분명하신 서방님을 저도 우러러보아왔습니다. 이곳은 내 땅이 아니지만 물론 우리는 모두 조선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니 삼강오륜도 땅에 떨어졌다고들 하더군요. 그러나 양반의 체통만은 엄연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고 해서, 천애고아라 해서 뼈대 있는 집안의 규수를, 야심의 노리개로 삼을 시, 저의 칼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 골수까지 종놈으로 썩어버린 놈이니까요. 그걸 충성심이라고들 하지요.”(토지 v.4, p.39)

(7)에서는 서로 다른 화자가, 동일한 인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속담을 사용하고 있다. ‘서희’라는 동일한 인물을, 서로 다른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서로 ‘못 오를 나무’로 지시하고 있다. 양반인 ‘상현’에게, 종인 ‘길상’이 혹은 연장자인 ‘길상’에게 나이 어린 ‘상현’이 ‘서희’라는 인물을 각기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표현한다. ‘상현’은 기혼자이며, ‘길상’은 종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속담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속담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대상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속담이 사용된 상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²³⁾ 이는 바로 속담의 비유성이 담화에서 나타

23) 구체화, 배경 정보 기능, 설득, 충고, 비교, 신변주화, 명세화, 강조, 글자 그대로로 써 표현 불가능한 대상을 표현, 표현의 생생함 등으로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은유의 기능이다. (박영순, 2000:93), (임지룡, 1997:167)참고. 여기에서의 은유란 비유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속담이 담화에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비유

내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의미와 담화 층위에서의 비유성에 관한 논의를 서로 관련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속담의 비유성은 관용적 의미와의 구현 과정에서 나타난다. 담화에서의 속담의 사용은 상황과의 적절성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의미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속담의 관용적 의미는 구체적인 명제적 내용이 아닌 관점이나 범주 표시이기 때문에 담화에서 지시 대상을 부여 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 의미론적 특성으로 설명되는 비유성이 화용론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 속담의 비유성에 대한 고찰을 의미, 화용론적 특성으로 관찰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속담의 비유성이 나타내는 의미, 화용론적 특성에 대해 살펴해보았다. 속담의 특성이란 속담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속담의 비유성을 다른 관용 표현과 나타내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속담의 비유성을 형식, 의미, 담화 층위로 나누어 살펴해보았다.

형식적인 면에서 속담에는 여러 수사 기교가 사용되고 있다. 이 점에서 속담의 비유성을 속담의 형식적인 특성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속담에 이러한 비유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속담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다양한 변이형태를 나타내므로 속담의 특성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가 갖는 화용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 층위에서 속담의 비유성은 관용적 의미 구현 과정에서 나타난다. 다른 관용 표현들의 관용적 의미 구현 과정은 비유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 층위에서의 속담의 비유성을 속담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속담의 관용적 의미란 관점이나 세계관 등을 표현할 뿐 일정한 구체적 명제로 나타내는 의미는 아니며 반드시 사람 자질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므로 다른 관용 표현과 구별된다. 이로 인해 속담은 담화에서 사용되면서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담화 층위에서 속담 비유성은 상황과의 적절성 여부의 판단으로 나타난다. 적절한 상황에서 속담에 사용된 어휘가 구체적 의미를 획득하고 다른 발화와 관련하여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 본 논문은 2006. 2. 24. 투고되었으며, 2006. 3.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5. 3.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성영(1998), “속담표현의 의미 화용론적 특성연구”, 불어문학연구 37, 한국불어불문학회, pp.608~622.
- 강성영(2001), “의미, 화용론적 관점에 의한 프랑스어 속담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 논집34, 한국프랑스학회, pp.1~20.
- 강성영(2002), “속담의 지칭 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 논집 38, 한국프랑스학회, pp.1~24.
- 강위규(1998), 국어 관용표현 연구, 세종출판사.
-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도환(1995), 한국속담활용사전, 도서출판 한울.
- 김봉순(1999), “속담의 설득성과 국어교육적 함의”, 한국어 국어교육연구회56, 한국어교육학회, pp.44~64.
- 김진식(1997), “관용어와 속담의 특성 고찰”, 《오당 조항근 선생 화갑 기념 논총》, 보고서.
- 김종수(2002), “속담의 구조와 화용적 기능”, 독어교육 25,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pp.225~246.
- 김희아(1995), “언어 속담의 유형과 의미”, 청람어문학 13, 청람어문교육학회, pp.189~207.
- 남상선(2000), “한국 정서 속담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60, 한국국어교육학회, pp.109~134.
- 문금현(1996),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문금현, “관용표현에 대한 국어교육학적 고찰”, 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박갑수(1966), “언어에 관한 속담고”, 이하운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 박경리(1982), 《토지》, 지식산업사.
- 박대복(1983), “속담의 용례 분석-고대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6, 한국민속학회, pp.119~155.
- 박만규(2002),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어학회공동토론회 발표논문.
- 박영순(2000), 한국어 은유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
- 박영순(1985), “관용어에 대하여”, 선암 이을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진호(2002),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회 공동토론회 발표논문.
- 서 혁(1993), “언어사용으로서의 속담표현의 특성”, 신청어문 2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pp.233~259.
- 성광수(1995), “국어관용 표현의 의미적 특성”, 《성곡논총》 26-上, 성곡학술문화재단.
- 심재기(1983), 국어어휘론, 집문당.
- 심재기외(1986), 국어의미론, 개문사.

- 안경화(2001), “속담을 통한 한국 문화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43~164.
- 유재복(1999), “우리말 속담의 화용론적 연구”, 한국어언어문학 42, 한국어언어학회, pp.559~571.
- 유재복(2001), “우리말 대칭속담의 의미 생성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어언어문학 45, 한국어언어학회, pp.453~471.
- 이성범역(1996), 화용론, 한신문화사.
- 이성영(1991), “속담어법의 국어교육적 의미”, 국어교육 73·7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167~185.
- 이수미(2000), “속담에 관한 몇 가지 언어학적 고찰”, 불어불문학 연구 44-2, 한국 불어 불문학회, pp.685~703.
- 이수미(2001), “속담어휘의 의미 기능”, 프랑스학연구 20, 프랑스문화학회, pp.167~185.
- 이수미(2002), “속담의모호성”, 프랑스학연구 24, 프랑스문화학회, pp.325~344.
- 이수미(2003), “속담의 의미적 특수성과 기능”-진실성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27, 프랑스문화학회, pp.183~203.
- 이수행(2001), “프랑스 속담 속에 나타난 어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승명(1993), “국어 대칭 속담의 연구”, 어문론총 27, 한국문학언어학회, pp.185~200.
- 이종철(1998), 속담의 형태적 양상과 지도 방법, 이화문화사.
- 임정혜(2000), “속담의 통사의미적 특성”, 프랑스학연구 19, 프랑스문화학회, pp.99~112.
- 양영희(1995), “관용 표현의 의미 구현 양상”, 국어학 26집, 국어학회.
- 임지룡(2000),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장경희(1988), “국어의 간접 표현”, 주시경 학보 제 1집, 탑출판사.
- 장경희(1990), “국어 발화의 확대 해석”, 한글 209, 한글학회, pp.99~122.
- 장덕순(1971),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 전혜영(2002), “여성관련 은유 표현에 대한 은유, 속담의 의미와 기능태학사, pp.215~240
- 전혜영(2001),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81~199.
- 정두환(2001), “말과 침묵에 관한 속담의 상호 언어적인 전망”, 현대문법연구 26, 현대문법학회, pp.179~197.
- 조재운(1988), “한국속담의 구조분석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주경희(1998), “텍스트에서의 속담 사용 양상”, 한국어교육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63~186.
- 주경희(1998), “문결속 기능으로의 속담 사용”, 텍스트 언어학 5집, 텍스트연구회, pp.87~

102.

주경희(1999), “속담의 기능”, 국어교육 10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pp.307~326.

주경희(2002), “속담과 관용어의 차이점”, 국어국문학 130, 국어국문학회, pp.83~108.

주경희 (2002), “속담의 교훈성에 대하여”, 국어교육 108,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pp.283~310.

천시권·김종택(1979), 국어의미론, 형설출판사.

최창렬(1995), “우리말 속담의 변이형과 의미”, 한글229, 한글학회, pp.233~254.

황경자(2000), “명칭과 문장으로서의 속담의 이중적 위상에 대한 연구”, 불어불문학연구442, 한국 불어불문학회, pp.775~805

황경자(2001), “속담 의미로서의 함축구조”, 프랑스학연구, 프랑스문화학회, pp.319~343.

황경자, 백경선(2002), “속담의 의미와 은유”, 프랑스학연구 24, 프랑스문화학회, pp.377~404.

황경자, 백경선(2001), “속담의미로서의 함축구조”, 프랑스학연구 21, 프랑스문화학회, pp.319~343.

<초록>

속담 비유성의 의미·화용론적 연구

주경희

이 논문은 속담의 비유성이 속담의 형식적인 면, 의미 구현 과정 및 상황과의 적절성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 중 비유성을 속담의 특성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속담 고유의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전제로 할 경우 비유성을 다른 관용 표현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간 여러 논의에서 비유성을 속담의 특성으로 혹은 관용 표현과의 구별기준으로 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형식, 의미, 담화 층위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양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속담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 발화체이며 동시에 관용적 의미 및 담화에서 부여받는 구체적인 의미도 있다. 속담의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속담의 비유성 역시 각 층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속담의 비유성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속담의 표면 구조에 나타나는 수사적 기교를 뜻한다. 그러나 모든 속담에 이러한 수사 기교가 사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속담의 의미나 기능을 밝히는 데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의미 층위에서 속담의 비유성은 명제적 의미의 은유적 해석이 관용적 의미라는 점에서 그 특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다른 관용 표현의 경우 관용적 의미의 구현 양상이 속담과 달리 비유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속담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담화에서 비유성은 상황과의 적절성 여부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

【핵심어】 속담의 비유성, 비유성의 의미론적 특성, 비유성의 화용론적 특성, 관용 표현과의 차이점

<Abstract>

**A Semantic and Pragmatic Approach to a Figurative
Characteristic of Proverbs**

Chu, Kyung-he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igurative character of proverbs from the prospective of pragmatics. A proverb in principle contains two meanings: proposition meaning and idiomatic meaning. However, in the discourse, a proverb has the specific meaning depending on the context it is used. Given this, the figurative character of a discourse is examined based on each language level. Previou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expression meaning of the figurative character. The figurative character of a discourse shown in the expression meaning does not help to clarify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 discours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figurative characteristics of a proverb in terms of semantics and pragmatics. The idiomatic meaning of a proverbs is metaphorical interpretation of the propositional meaning. The idiomatic meaning of a proverb shows a specific viewpoint; therefore, it is given more specific meaning than its use in a discourse, imply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emantics and pragmatics are closely related. The characteristics of a proverb is the uniqueness of a proverb by itself. Therefore, it can also be regarded as the standard to differentiate from other idiomatic expressions.

[Key words] a semantic and pragmatic approach, figurative characteristic of proverbs, proposition meaning and idiomatic meaning, the uniqueness of a proverb.